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6차	일자	2021.08.30. 18:30	장소	온라인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1

## <개회>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가을축제 준비 중.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진로 멘토링 진행 중. 사과제 준비 중.
약학대학	이번주 목요일에 학장님과 미팅 예정.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가을 축제 대동제 준비 중. 시설팀, 교학지원팀과 협의하여 공간문제 논의 완료.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9/1,2,3일 공퀴즈 온더 블록 업로드 예정.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재등록 심사 과정 진행 중.

##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운위 논의 후속 조치 및 문의 진행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집장단 2학기 개강인사 이벤트 기획 중, 1학기 학사 만족도 및 등록금환불 결과보고 및 요구안 게시	성평위 리크루팅 진행 완료
연대사업 비건학식 시식회 진행 완료	인복위 중앙도서관 사물함 철거 요원 선발 진행 완료,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인원 모집 중, 비건학식 도입 관련 총무처 논의 진행 중, 비건학식 시식회 진행 완료
일상복지 교외 불법 카메라 탐지 상권 조사 및 업체 연락 중	장인위 배리어프리지도 온라인 배포 완료 및 실물지도 배부 예정, 배리어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 추가 사업 진행 중
전략정책 전임 교원 확충 관련 자료조사 및 공문 발송	졸준위 졸업기념품 영상 촬영 예정
홍보소통 2학기 푸양 개강 응원행사 기획 중	

### 3 논의안건

#### 1.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자 면접

- 후보자 자기소개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공공인재학부 19 김재석 지원자
  - 수학과 20 임수현 지원자
- 청문 후 인준
- 기타질의

부총: 음향문제로 잠시 대기했다가 시작하겠다. 지금 잘 들리는지? 네 감사하다.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자 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수학과 20학번 임수현 지원자는 지금 현재까지 연락이 따로 되지 않아서 지원이 자동으로 취소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곧 김재석 지원자 초대해서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다. 후보자 소개를 진행한 후에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중앙감사위원장 면접 전에 보고안건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전략정책국에서 진행하는 전임 교원 확충 관련 자료조사 및 공문 발송에 대한 질의이다. 사회과학대학 이번 단위요구안 2번이 전임교원 확충 문제였고 관련해서 리더스 포럼에도 가져가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총학 측에서 어떤 공문 보내셨는지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로 추후 학교측 답변이 오면 답변도 같이 공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부총: 일단 단위별 학생수에 비례한 교원수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관련해서 답변이 오는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있었던 학우 피드백을 계기로 진행하게 된 사업이라는 것 알려드리겠고 면접을 지원하기 전에 임수현 지원자한테 연락이 와서 잠시 확인한 후에 진행하겠다.

사과.부: 네 답변 감사하다.

부총: 임수현 지원자에게 방금 통화를 했고 면접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김재석 지원자 다음 순서로 해두도록 하겠다. 먼저 김재석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겠다. 지원자분 말씀 들리시는지?

[김재석 지원자 면접 진행]

김재석 지원자: 들린다.

부총: 음량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후보자 자기소개 먼저 하신 후에 중운위 질의응답 진행하겠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김재석 지원자: 마이크가 너무 작은지? 들리시는지?

부총: 들리긴 한다.

김재석 지원자: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지원자 공공인재학부 19학번 김재석이다.

부총: 자기소개 끝나셨으면 중운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

김재석 지원자: 네

부총: 질의가 있으신 단위는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된다.

총: 지원서에 2021년도 상반기 보고 자료를 인상 깊게 보았고 많은 자치 기구들의 회계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기술해주셨다. 본인만의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김재석 지원자: 자료를 보면 일단 대부분의 단위에서 감사를 안 받는 의결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았다. 그래서 학부생의 입장에서 감사 대상 단위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같은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적어도 어떠한 자료들이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이 되었는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보관이 되었는지는 공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단위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총: 피감사기구의 감사 권한에 대한 의결을 피감사기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김재석 지원자: 감사 의결을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고 중앙감사위원회가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총: 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다. 피감사기구가 자체적인 총회나 기타의결기구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회칙이 마련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자분의 의견을 여쭙겠다.

김재석 지원자: 감사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총: 피감사기구 내에서 의결을 거치면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자분의 의견을 여쭙겠다.

김재석 지원자: 자체적으로 의결을 하였다면 중앙감사위원회가 중복적으로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의결에 있어서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 추가로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다.

총: 제가 드린 질문의 연장선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다. 만약 피감사기구에서 의결을 거쳤다면 적어도 그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중앙감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라고 얘기 해주셨다. 중앙감사위원회가 처음 설립이 될 때에도 피감사기구에게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피감사기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런 것이 중앙감사위원회 존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석 지원자: 우선 중앙감사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학생회비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와 같은 점에서 학생분들에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피감사기구가 자체적으로 그런 감사가 되고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학생들 스스로 납득할 만큼 확인이 된다면 중앙감사위원회의 업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피감사기구들의 자체 감사 의결이 있으려면 총학생회가 꾸러지거나 혹은 그에 걸맞는 대표들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모든 학생자치기구에서 학생회가 매년 선발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단위가 항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운위의 특별기구인 중앙감사위원회가 이런 보충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저는 지원자분의 의견에 우려스러운 점이 중앙감사위원회는 중운위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충 역할을 하는 것 자체도 중앙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충자 역할이라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해주실 수 있는지?

김재석 지원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을 읽다 보면 중앙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조항들이 많다.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고 목적같은 것에는 감사할 수 없다는 조항들이 중복적으로 많이 있다. 피감사기구들의 자체 의결 시스템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지 않는지? 우선 피감사기구들이 자신들의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때 의결이 마쳤다면 중앙감사위원회에서는 피감사기구들의 의결을 존중하고 하지만 애초에 그러한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앙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총: 답변 감사하다.

부총: 본 면접은 5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다. 추가 질의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된다.

총: 또 한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다. 지원자 본인의 지원서를 보면 자체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도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중앙감사위원회가 피감사기구 위에서 군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중앙감사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피감사기구를 감사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 이 지도라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김재석 지원자: 지도라는 표현은 중앙감사위원회가 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의 의도가 아니다.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상에 중앙감사위원회는 피감사대상기구들이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표현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인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쓴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중앙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 규정에서 어떠한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련 서류들이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발의를 저희가 하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표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회계내역이나 증빙자료들만 봐서는 이것이 잘 쓰인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대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중앙감사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총: 저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다. 중앙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학생 자치 내에 융화가 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중앙감사위원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하면 학생 자치에 융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회계사용내역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심도 있게 고민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재석 지원자: 질문을 두 가지로 하신 것인지?

총: 그렇다. 학생자치 내에서 융화될 수 있는 방안과 본인의 회계사용내역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쭙봤다.

김재석 지원자: 중앙감사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한다. 중앙감사위원회가 보고 자료를 내놓은 것을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뿐이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학생 자치와 잘 어우러지지 않았다고 대표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임기가 3개월 남게 되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을 겪었던 대표자님들의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감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멀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대표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수준의 감사를 해본 적은 없다. 다만 1학년 때 과대의 경험을 하면서 학생회비가 어떻게 모집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며 또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사업들에 동참하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았다. 그외에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해본 경험은 없다.

총: 답변 감사하다.

김재석 지원자 :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해본 경험은 없다.

총 : 답변 감사하다.

부총 : 감사하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김재석 지원자 분에 대한 면접은 이 정도로 진행하겠다. 면접 수고하셨고 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퇴장하시면 된다.

김재석 지원자 : 감사합니다.

[임수현 지원자 면접 진행]

부총 : 다음은 임수현 지원자 모시고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내드린대로 후보자 자기 소개 간단하게 진행한 뒤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임수현 지원자 : 수학과 임수현이다.

부총 : 자기소개 마치신 것 같아서 질의응답 진행하겠다. 질의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다.

총 : 질문 드리겠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임수현 지원자 : 제가 처음 중앙감사위원회를 알게 된 계기는 선배의 권유로 알게 되었다. 그때는 수학과와 과대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었던 자리여서 지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원하게 되었다. 1학년때 회계에 대해 배우면서 흥미를 느꼈고, 이 일을 하면서 회계 관리에 대해 궁금함을 느껴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다. 이상이다.

총 : 질문 드리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수현 지원자 : 제가 생각하는 중앙감사위원장은 학생회나 자연과학대나 이런 대학 각 학부들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제출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과의 비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총: 중감위원장이 도중에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자분의 생각을 여쭙보고 싶다.

임수현 지원자: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다. 왜 사퇴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총: 지원자분께서는 중감위 회칙을 읽어 보셨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감위 회칙 내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문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임수현 지원자: 저는 조금 놀랐던 부분이, 어떤 목적에서 돈을 썼는지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처음에 있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다.

총: 어떤 부분이 의아했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겠나 같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임수현 지원자: 공적인 목적인지 사적인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을 확실하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중감위가 확실하게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 중감위원장은 총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직선제가 아니라, 중운위를 통해 선출되는 임명제라고 볼 수 있다. 임명제로 선출한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각자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중감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씀해달라.

임수현 지원자: 임명제이기 때문에, 지원한 사람들 사이에서 임명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여기 계신 분들이 피감사기구의 장들이시다. 피감사기구 장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이 선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수현 지원자: 맞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투표되기 때문에 자질이 있는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선례가 있으니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총: 중간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은 7시 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다. 추가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다.

총: 지금 중감위 회칙 상 피감사기구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이 징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임수현 지원자: 징계권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책임감을 주어야 우리 학생들이 낸 돈으로 자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돈을 확실한 책임을 두어야 좀 더 알맞은 곳에 쓰일 것이라 생각하기에 확실한 징계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대한 파면, 그리고 주어진 장학금 역시 환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임명제로 선출된 위원장이 직선제로 선출한 장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임수현 지원자:

총: 직선제로 선출된 사람에게 징계를 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임수현 지원자: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단과대 중 작은 과의 경우, 오히려 친분으로 인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확실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잘못을 했다면 파면이 필요하다.

부총: 다른 단위의 질문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마이크 켜고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중앙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지 3년이 되는데 여전히 학생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어떤 학우분들께서는 중감위의 현 체제,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원자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임수현 지원자: 중감위에서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배의 권유가 있지 않았다면 저도 중감위의 직책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확실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 확실한 벌을 주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중감위의 확실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답이 되었는지?

인문.정: 답변 더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란다.

임수현 지원자: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등록금 환불도 문제가 있지만,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총: 시간이 되었으므로 면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지원자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추후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임수현 지원자: 네 감사하다.

부총: 감사합니다.

[면접 종료]

부총: 바로 투표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곧 채팅창에 올리드릴 테니 이 점 참고하시고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채팅창에 남겨 주시기 바란다.

[표결 진행]

[기권 과반으로 부결]

부총: 현재 기권이 과반이 넘어 해당 투표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재투표를 한 번 더 하고, 또다시 부결이 된다면 후속 논의를 하겠다. 다시 의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결 진행]

[기권 과반으로 부결]

부총: 투표 결과를 확인했고 지금 상황대로라면 부결이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겠다. 일단 기권하신 단위 위주로 두 후보자 모두 인준이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우선 2번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감위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오히려 일반 학생회 총무를 생각하고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부분은 지원금이 아니라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인 부분인데 해당 내용 답변과 더불어서 다른 답변을 보면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2번 후보자는 고려하지 않았다. 1번 후보자는 경우에는 2번보다는 중감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학생 사회 안에서의 중감위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두 후보자 모두 뽑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상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의견이 있다. 어차피 지금 투표 결과가 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자 모두 여기 있는 학생회장님들의 중감위 면접으로써의 어떤 자격 미달인 부분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기권해주셨을것이라

고 생각한다. 지금 해당 논의는 기권을 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보다는 차후 중감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두분 다 면접에 이미 떨어지셨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부총: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중운위에서 인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감위원장의 선발 절차이지만 중운위에서 부결권까지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결과가 바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학생회장 발언 이후 논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총: 기권을 한 이유는 모든 대표자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견 여쭙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이미 중운위 차원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고 지원자가 없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부결이 됐고 선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추가 모집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공식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부총: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의 의견을 표명하고, 지금 중감위원장이 선발된다고 해도 임기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 다른 단위 의견 더 들어보고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범.정: 사범대도 방금 총학생회장이 한 말에 동의한다.

총: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다.

부총: 동연 부회장님 말씀하신 후 발언권 드리겠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똑같은 의견이다. 공식으로 남겨두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총: 말씀 드리자면 우선 전학대회에 중감위의 방향성에 대한 의제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모든 대표자분들과 함께 얘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식에 대한 부분은 차기 중운위 회의나 차차기 회의로 안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건에 별도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없다고 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안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통공.정: 공대 학생회장 질문이 있는데 중감위 회칙 수정에 대해서는 중운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부총: 제가 답변을 드리면 회칙을 살펴봐야겠으나 중운위가 중감위의 회칙을 직접적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따진다면 중감위 등의 위원회를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전학 대회여서 아마 중운위에서 어떤 틀이나 계획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전학대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공.정: 네 확인했다.

부총: 중감위의 추가모집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전학 대회에서 중감위의 다음 방향성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관련한 중운위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더 받고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겠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신걸로 하고 지금 논의 결과로 다음 회의에 반영하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기타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해달라.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다.

## 2. 학사개선요구 관련

- 지난 논의 결과 검토
  - 강의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후 요구사항 구체화
  - 실험실습 및 실기수업에 대한 시설 및 기자재 사용의 경우 중사본 요구사항으로 재정립
- 각 내용에 대한 요구안 검토 및 논의
- 요구안 확정 및 송부
- 기타질의



부총: 학사개선요구 관련 논의이다. 저번 회의 때 논의한 두 가지 기조로 재정립하게 되는데, 강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요청 드린 표본이나 설문조사를 제가 수합 받은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 작성이 불가했다. 이 부분은 이따 회의 때 논의나 의견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실험 실습 및 실기 수업과 관련하여 중운위 공지방에 올려드린 파일을 읽고 3분간 검토한 뒤에 논의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다. 해당 요구안은 교무위원회나 중앙사범 수습본부 등 중앙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경로 계획하고 있다.

시간이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신 요구안에 대하여 피드백이나 의견 받도록 하겠다. 해당 내용에 의문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주셔도 괜찮다.

예술.정: 예술 대학 말씀드릴 게 있다. 여기 쓰여진 내용들 대체로 다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단운위에서 회의했을 때 과마다 입장도 살짝 다르고 단과대 안에서 과마다 다르게 실제로 운영되기도 했었고, 예술대는 지난 학기 단과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단과대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내려가고 거기에 과에서 실행하는 것들이 다를 것 같다.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과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더 소통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부총: 사실 방금 예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회의에서 아마 제가 이미 거론을 했었고, 이에 각 단과대에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단과대 집행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사팀에서도 단과대에서 실무적으로 개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저번 회의에서 해당 의견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단과대와의 논의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단위의 의견에 따라서 요구 방향을 다시 정립한 것인데 그럼 지금 올려드린 요구안대로 진행하는 것과 방금 예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회의에서 한 번 언급된 바 있는 단과대 개별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다른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간호.정: 저번 회의에서 가져오신 말이 오늘이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두 번째, '중앙의 방역 지침과 시설 사용 기준 재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의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안돼서 다시 이 논의를 하는 건지 여쭙보고 싶다. 그리고 첫 번째 요구사항과 두 번째 요구사항의 내용 차이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둘 다 예시가 똑같은 예시이고 결국에는 중앙의 방역 지침과 시설 사용 기준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인데 위에 '온라인 수업 환경과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일단 첫 번째로 지난 회의 결론과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쭙본 것이고, 두 번째로 요구안의 내용은 일단 그 두 가지 골자는 원래 있었던 학사개선 요구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는 지금 실험 실습 및 실기 운영의 커리큘럼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험 활동이나, 사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결과적인 맥락은 시설이나 기자재를 사용해달라는 것이 맞는데 양 갈래로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현실에 맞게 커리큘럼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설과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방역지침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다. 두 내용 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내용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대 회장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회의에서는 중앙의 방역지침에 수정이 없다면 단과대 별로 논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나 혹은 실질적으로 단과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요구안 내용이 잡혀졌는데 말씀하셨던 단과대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근거나 배경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술.정: 저희 예술 대학의 경우 시설 사용 대부분 부분적으로 허가된 바가 있었고 이게 단과대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게 중앙에서 아예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다. 다른 단과대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받아서 이게 중앙에 요구되어야 한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예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 상황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단과대 내에서, 또 과 내에서 소



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특이 케이스라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 저희 예술대학만의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드렸던 것인데 다른 실험실습을 하시는 단과대에서 이게 중앙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하면 편성이 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설 사용이 대부분 허가된 바가 있었고 이게 단과대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계속 단과대 내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실험 실습을 하시는 단과대에서 이게 중앙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송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총: 그러면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지금 논의가 쉬운 단과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단과대가 있는 것 같고, 모든 단과대가 예술대처럼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앙의 지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제 판단에서는 중앙에 지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주시고 나머지 아까 간호대처럼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없으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일단 중앙에 방역 지침을 수정하는 요구 방향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두 요구사항이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을 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관련 결과는 온라인으로 상황 공유하고 확정하도록 하겠다. 논의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받도록 하겠다. 없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장학제도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3. 장학제도 개정 논의

- 장학부서 의견 전달
  - 성적반영비율의 경우 정해진 안이 없으나, 60:40을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의견 전달 바람
  - 비교과의 경우 각 단과대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단위 특성을 반영토록 논의 이관 생각
- 장학부서 의견 검토 및 중운위 의견 공유
  - 성적반영비율 논의
  - 장학부서의 비교과 기준 관련 의견에 대한 논의
- 기타질의

부총: 일단 장학부서에 지금까지의 중운위 의견 그리고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까지 실제 장학 담당하시는 과장께 정보 전달을 드렸고 관련해서 담당자 의견을 받아서 안건지에 기재해 놓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성적 반영비율에 관해서 학생지원팀에서 예정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안에 대해서 따로 있지 않으나 담당자 개인 의견으로 볼 때 예를 들어 90:10, 80:20 정도의 성적을 반영한다 하면 신설 장학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적정 수준으로 생각하는 반영 비율은 성적 60%라고 생각을 하나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학생의견도 전달해 주시면 이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비교과 기준의 경우에는 지금 장학부서 담당자의 경우는 비교과의 경우에는 각 단과대...

[인터넷 오류로 의장 퇴장]

총: 인터넷이 잠깐 끊겨서 재입장을 하신다고 한다.

[의장 재입장]

부총: 정말 죄송하다. 제가 어디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처음부터 부탁드린다.

부총: 알겠다. 일단 장학제도 관련한 중운위의 논의사항과 총학생회 집행부 의견까지 모두 장학부서에 전달을 했고 담당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적 반영 비율의 경우는 학생지원팀에서 정하고 있는 안은 없으나 담당자 개인 의견으로서는 예를 들어 80%, 90% 성적을 반영한다고 하면 신설 장학제도의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적정 수준으로는 60%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학생 의견도 전달해 주길 바란다. 그 이후에 반영 비율을 조정하며 되겠다라는 의견이었고, 비교과의 경우는 담당자 생각으로는 각 단과대 교학지원팀이라던가 각 단과대 집행부에 논의를 넘겨서 비교과 기준에 있어서 단위별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해당 단위만의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설 장학제도가 기존의

장학제도와는 다르게 각 단과대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로써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인은 그렇게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장학부서의 의견은 이 정도로 전달 드렸고 일단 지금 상황에 따르면 성적 반영 비율, 중운위에서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성적 반영 비율과...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총: 네.

부총: 네 감사하다. 이에 따르면 중운위에서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성적 반영 비율과 장학부서에서 제시하는 비교과 기준은 단과대 별로 논의하고 확정하는 안에 대한 중운위 의견을 공유하면 될 것 같다. 그 전에 혹시 장학부서 의견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남길 단위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의견이 아니라 질의가 있는데, 혹시 장학 부서에서 60:40을 적정수준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규 장학제도를 개설하면 단위별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부총: 일단 60%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비교과 기준 같은 경우는 아직 장학부서 의견도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으나 절차적인 부분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아마 비교과 기준에 관해서는 단위별로 장학을 시행한다 정도의 의견으로 전달받았다.

인문.정: 그러면 원래 성적 장학금도 단위별로 신청 결과가 나오는데 신설 장학제도도 단위별로 개인이 신청해서 교학지원팀에서 그것을 결과 수합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쭙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총: 네, 구체적으로 여쭙 보도록 하고 제가 당시 의견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아예 인원선발이나 지급까지 단과대별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으로도 생각 중이신 것으로 파악된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관련해서 질의 있는데, 해당 두 장학제도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총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각해서 장학금이 나오는지? 특히 비교과 장학금의 경우 각 단과대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 이관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적어도 4%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면 파이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알 수 있는지?

부총: 일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의를 했을 때에는 일단 이 신설 장학제도는 단과대 장학금으로 장학부서에서는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눠보게 되면 단과대 인원 비율 차이대로 분배를 한 다음에 각 단과대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장학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통공.정: 이 장학금이 이번 2학기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부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아야 한다.

경경.정: 경경대 질의 있는데, 해당 내용이 단과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을 학교 본부에 저희가 교지팀에 전달할 것이 아닌 학교 본부 차원에서 교지팀에게 충분한 공문 발송과 함께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교지팀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요구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본다.

부총: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과대별로 이관하는 것, 담당자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담당자 개인 의견을 들은 것이고 단과대로 논의를 이관하겠다 하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교지팀에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고, 그 장학부서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나누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주시면 된다. 질의가 있으면 더 받고 없으면 두 가지 차례대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단 장학부서 담당자는 60%정도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에 대한 중운위의 의견을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예술대 의견 말씀드리자면 성적 반영 비율도 이게 만약 단과대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

회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적 반영 비율이랑 단과대별 비교과 장학금도 단과대마다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부총: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성적 반영 비율은 고정적으로 하고 비교과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단과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되어있고 해당 의견을 제안을 하신다면 장학 부서에 전달은 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네, 일단 그 정도의 의견정도 드릴 수 있겠다. 비율 60, 70 이거에 대해서 예술대학은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다.

부총: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그럴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인지 혹은 그런 방법을 제안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

예술.정: 네, 제안한 것이다.

부총: 네, 알겠다. 성적 반영 비율이나 혹은 방금 또 의견이 나왔으므로 성적 반영 기준을 모든 단위에 획일화할지 아니면 성적까지 단위별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지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아마 성적 반영 비율은 논의를 거치면 성적은 중앙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나 성적까지 단과대로 넘기는 것이 중론이라 하면 중운위 의견으로써 강력하게 제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경경.정: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장학 제도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단과대별로 최대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비교과의 경우에는 지금 피치못하게 각 단과대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단과대별로 넘기는 것이 맞되 각 단과대 교지팀끼리 조금 상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직 이 비교과적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 예상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또 너무 자체적으로 맡기게 되면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이 단과대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조금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다.

총: 네, 의견 드리자면 비교과 정도는 단위의 특성이 충분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성적이라는 것이 단위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적 비율 정도는 중앙에서 통일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것이 단과대 내에서 경쟁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까지 단위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과.부: 사과대 질의 있다. 다시 원론적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학교 측에서 왜 새로 신설하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다. 저희가 맨 처음에 장학제도 개정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때 학교 측에서 성적 장학금에 대한 파이를 축소시키고 그 대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적으로 어려운 학우들 또는 그 외에 기타 소득분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적 장학금을 결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간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을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완료했고 의견을 보냈음에도 수용하지 않았으면서 왜 지금 성적 반영 비율을 60:40으로 하는 장학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왜 긍정적으로 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왜 이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한 것인지?

부총: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성적 장학금을 축소를 하는 것은 학칙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지원팀 외에 기획처라든지 본부의 의지가 있었던 안이고,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 그러니까 그 주무부처가 학생지원팀이 아니라 본부 다수의 부처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 판단으로는 본부 의지로서 강하게 추진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외의 부분, 그 외의 장학금 지급이나 특히 신설 장학제도 논의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가 학생지원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신설 장학제도 논의만큼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이 논의 시작할 때도 전달을 했고 지금도 관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 그리고 이미 성적장학금을 감축함으로써 어느 정도 소득분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장학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부총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성적 장학금 감축은 본부의

의지도 있겠지만 62대 총학생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나머지 비율에 대한 장학금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부총: 정리를 드리면 성적 장학금 감축은 학칙을 개정하는 안이고 그에 관련한 본부 총장단이나 집행부 전체의 의지로써 그리고 작년부터 이루어진 합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다만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올해 새롭게 논의하고 있는 바이고 이것에 한해서는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총: 부총님 마지막에 끊겨서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전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될지?

총: 네.

부총: 정리를 드리면 성적장학금 감축의 경우는 작년에 이루어진 합의에 기반해서 또 학칙 개정과 관련한 본부 총장단 및 집행부 전체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고 신설 장학제도 논의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학생지원팀에서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논의 시작부터 약속이 되었고 지금 그 기초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합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더 질문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원래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네, 그럼 계속 진행을 하면 비교과라는 항목의 특성에 따라 단과대별 특성이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지만 부서간 통일된 기준 혹은 부서간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학생들의 혼란이나 차별이 없도록 비슷한 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성적 반영 비율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성적의 경우는 모든 단과대가 통일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리고 아직 반영 비율에 대한 안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사범.정: 사범대 의견 드러도 되는지?

부총: 네.

사범.정: 성적 반영 비율이 성적 비율이 60%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서도 좀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성적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주시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불가능한지?

부총: 제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일단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안을 제시하면 합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찾게 될 텐데 그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장학 담당자가 제시하는 60%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면 중운위에서 더 많은 성적 반영 비율을 표명을 해야 지 그 사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퍼센트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것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가 하나 있는데 해당 논의가 엄청 급한 것인지?

부총: 제가 급하다 안 급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적용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야겠습니다만, 매주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은 단위의 어떠한 의견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 중운위에서 의견을 어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인문대학은 일단 단과대별로 이 신규 장학금이 적용되고 지급되는 지가 일단 확정되어야 저희도 그 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운위에서는 성적 반영 비율에 대한 통일된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과 기준에 대해서는 단운위별로 그리고 단과대와 단과대 교학지원팀이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정 지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과대별로 지급이 되는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논의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가야할 지 인문대학은 사실 잘 모르겠어서 해당 제안을 드린다.

부총: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 나온 의견들은 있다. 그리고 장학 제도 관련 논의와 관련하여

퍼센트에 대해서 단운위 논의까지 거쳐야 제 개인적으로 크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운위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어 다음 주, 다다음주 이런 식으로 제가 결과를 수합 받기는 좀 지체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주 내에 일단 제가 날짜를 제안 드리면 수요일까지 단위별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이 있는데, 해당 내용 성적 반영 비율 퍼센트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게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어서 하게 되는 실정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하려면 비교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정한 다음에 교과 비교과의 퍼센트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또한 이 퍼센트가 가장 나중에 정해져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단과대별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서 진행이 될지 미결정인 상황에서 어떻게 교과 비교과를 나뉘어서 퍼센트를 정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저희한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 내용은 퍼센트는 이따가 고려해야할 사항이고 학교 본부 측에 이게 단과대별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학교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될 지 정확하게 여쭙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비교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학교 본부 측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비교과에 대한 내용도 저는 단운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 단과대 교지팀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조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경경대는 지금 퍼센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총: 무엇을 우선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성적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비교과 기준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한다, 각자마다 상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비교과 기준과 이 성적 반영 비율을 단과대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단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 확정이 되어야지 이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한다. 다만 제가 논의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 안에 처음부터 초안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학생대표자 의견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경경.정: 학생 대표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으나 현재 성적 반영 비율 자체를 저희한테 여쭙볼 것이었으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제공되는 정보들은 개인적으로 학교 본부에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비율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율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지금 장학 비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비율을 여쭙보시니까 저희가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 근거에 더 붙어서 얘기를 해야 될텐데 그 근거를 만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렇게 퍼센트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과 교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논의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논의가 거친 다음에 퍼센트를 다뤄야 의미가 있다는 말이었다. 물론 퍼센트의 비율도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다.

부총: 일단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당장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적 비율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적 외 다른 기준이 삽입되는 순간 이 성적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부서가 감적으로 부서가 생각해서 적정한 안을 가져올 것이고 중운위 측에서도 학생 입장에서 이것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학생회 측에서 적절한 퍼센트를 제시를 하면 양쪽 간의 의견 교류를 해서 이거를 협상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명확한 근거로써 데이터로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논의의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론인데 성적 비율을 모든 단과대가 동일하게 적용하자 이것이 중운위에서도 이렇게 하자라고 가는 것이면 제 생각에는 성적 비율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위별 논의를 맡겨야지 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그 성적이

먼저 확정된 후에 비교과가 단위별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그 성적 확정 시점 후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율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장학부서와 중운위 모두 개인 의견을 기반해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저희는 학생 입장에서 이것이 충분한지 충분치 않은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관해서 아까 단운위의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 시간이 수요일 정도에 의견 수합을 하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통공.정: 일단 공대는 지금 많은 말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단운위 내에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렇지만 부총학생회장님 처럼 성적 반영 비율을 정하지 않고 단운위 논의를 하면 또 단운위에 따라 각기 다른 퍼센트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단위별로 성적반영 비율이 다르면 그건 또 그거대로 학생사회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적반영 비율은 이 자리에서 통일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비교과 관련해서 어떤식으로 진행할지는 단위별로 취합을 해서 다시 총, 부총께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과연 이게 논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 비교과 관련된 부분이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번 학기에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다. 그게 아니면 그냥 수요일까지 해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불완전한 상태로 이번학기 장학기준이 마련될 것 같아서 이번학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우선 빨리 알고싶다는 게 제 의견이고 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말씀드리는데 성적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성적장학금을 줄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이상 놓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성적과 비교과 동시 반영이니까 그냥 반반으로 해서 50%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총: 의견 감사하고 일단 이번학기에 적용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에 따른 논의가 확정 되어 되는 시기는 내일 문의해서 답변 드리겠다. 내일 담당자가 출근하면 바로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적 반영 비율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저도 제 의견을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희가 이 제도로써라도 성적장학금 수요를 좀 보존한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저는 부서에서 60%를 제시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90%, 80% 이런 것은 비현실적인 안으로 담당자가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에서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70%에서 최소 65% 정도 까지는 성적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근거를 따로 책정할 수는 없으나 굳이 된다고 하면 성적이나 혹은 교내의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5% 단위의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5%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운위의 성적비율 반영 관련 요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존대로 단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재차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 단운위와 따로 논의 필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안할 것 같고 저희도 해당 부분이 성적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한다고 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과반의 비율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맞다고 판단이 되며 60%~7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사범.정: 사범대도 단운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성적비율이 최소 60%~70%까지는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달 드린다.

부총: 혹시 아직 말씀 안 하신 단위 중에 단위 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아직 생각하시면 재차 의견 표명해주시기 바란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기획처 방문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16시 경에 장학부서를 찾아가서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고 일단 가장 높은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부터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을 해본 다음에 최소한 70%는 반영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중운위 의견을 일단 정하도록 하겠다. 제가 4시에 문의를 하러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 아직 단위내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단위가 있다면 4시안이라도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틀 안에서 반영 가능한 의견이면 반영을 해서 장학제도 장학부서에 전달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고 일단 논의는 이정도로 정리하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다.

통공.정: 단운위 의견 수합을 수요일까지로 말씀 하신건지?



부총: 아니다. 지금 일단 단운위 의견수합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게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내일 4시중에 제가 방문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단위내 의견수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위가 있다면 4시 전에라도 가능하다면 의견수합을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라는 얘기였다. 정정하면 저한테 말고 중운위 대화방에 남겨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죄송한데 지금 결론과 논의해야 할 지점을 한번만 다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사실 인문대학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 오늘 회의의 결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총: 일단 제가 지금 장학부서에 가서 논의 할 바는 오는 2학기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시기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를 문의 할 생각하고 중운위 입장으로 요구를 할 것은 일단 중운위에서 최소로 생각하는 성적반영 비율을 70%로 두고 최대 비율부터 협상 가능성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비교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그 단과대별 특성을 반영을 해서 비교과 기준에 수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과대별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나 이제 단과대별로 항목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혼란이나 제도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과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앙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거나 혹은 단과대 집행부간 논의를 거치도록 그 과정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됐다.

인문.정: 그런데 인문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단과대별로 적용하고 지급한다라는 것 자체도 아직은 결론이 난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본부의 명확한 의견을 모으려면 의견을 어필하고 학교본부와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려면 이것도 중운위 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오늘 남긴 결론은 알겠으나 결국 이 부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총: 일단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진행하는 제 개인으로써는 이미 비교과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과대에서 비교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일정 정도 동의한다로 인식을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논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의견 공유를 진행하고 안건 마치도록 하겠다. 그러면 성적+비교과 신설 장학제도에서 비교과 기준을 단과대별 논의에 따라서 결정하고 단과대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단과대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과대별 특성을 반영한 비교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 신설제도를 단과대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운위 의견을 묻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신다면 동의 의견을 표명해주시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해당사유 혹은 대체 방안이 생각하신다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약학.정: 약학대학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동의한다.

부총: 더 많은 단위가 의견을 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다.

통공.정: 공대도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동의한다.

부총: 혹시 별도의 의견 있는 단위 없는지? 그러면 해당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운위 동일 입장 표명하는 것으로 그 부서에 전달하겠다. 그럼 해당 안건은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기타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4 기타안건

\* 상정되지 않은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진행

### 1. 기획처 방문

8월 31일 (화) 14시, 중운위 기획처 방문

부총: 원래 오늘 기획처를 방문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기획처장의 일정상 문제등이 있다고 하여 어쨌든 내일 2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처에 통보를 해놓았다. 기획처에 방문해서 일단 재정정보 관련해서 이미 요구안이라든지 행정부총장까지 거쳐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등록금 환불에 대한 그 기획처의 입장이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겠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질의 하나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등록금 환불 협의를 거의 받아주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저희가 말하면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인지?

부총: 제가 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내일 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하게 들어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

인문.정: 혹시 내일 기획처 방문은 두 분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되는 중운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인지?

부총: 여기 안건지에 써 놓은 대로 중운위가 참여하는 걸로 전달해놨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참불 투표는 회의 이후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 정 네트워크 문제로 부회장님으로 발언하도록 하겠다. 중운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획처 등과 같이 주요 부서에 방문하실 때는 대표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일요일에 내일 미팅을 잡겠다, 오전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미팅이 또 화요일이 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대표자가 기획처 방문에 참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각 단과대 대표자들의 일정도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는 기획처 등 주요부서 미팅을 잡으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좀 더 저희 일정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총: 보통 저희가 총학생회장단 차원에서 주무부서에 방문 일정을 조율할 때에는 주무부서 장이 상주하고 있는 시간대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잡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앞으로 말씀해주시는대로 최대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번 안건 자체가 예전부터 쪽 이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내일로 확정을 하게 되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과.정: 그 시급성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거의 이 안건이 두 달 넘게 끌고 와진 것 같은데 미팅을 이들 전 하루 전 이렇게 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표자들과 두 달 동안 시간을 조율할 시간이 충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주무부서 미팅을 할 때 대표자들의 일정도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총: 네 알겠다. 이 건에 대한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기타 논의 사항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 (하반기 대표자회의 진행 방식 관련 논의 안내)

총: 추가 질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기타 안건을 하나 상정하도록 하겠다. 개강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하반기 전학대회 진행방식과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단 지난 1학기 때 전학대회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전학대회 진행 방식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일정은 개강 45일 이내라는 회칙에 근거해서 일정을 확정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10/1까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중간고사가 10/18부터 진행이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단운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고 전학대회 진행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단운위에서 사전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문.정: 인문대학 기타 안건 상정하고 싶은게 있는데 기타 안건이 아니라 저희 3번 학사요구 개선 요구에서 강의 재사용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요구사항 구체화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강의 재사용 대책마련 요구 논의)

부총: 제가 안건 처리를 빼먹었다. 죄송하다. 일단은 지난 회의에 근거를 하면 이제 표본이 있는 단위에서 표본을 좀 전달해주시면 좀 강의 재사용 기준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지책이나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요구를 하자가 지난 회의 결론이었는데 제가 일단 표본이나 이런 걸 따로 수합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아까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표본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 수요일 중에는 그 자료를 좀 전달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대표자들이 생각하는 강의재사용의 기준이나 혹은 지난번에 잠깐 거론된 적이 있는 강의 재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학교 본부가 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방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오늘 그리고 지난 회의 의견과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구안을 작성해서 공유를 하고 해당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단 지난 회의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위별로 사례 수합을 한 것들이 있으므로 해당 사례를 종합해서 강의 재사용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그 후에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시가 됐던 것은 학교에서 강의 재사용과 관련해서 별개로 사례수합이나 혹은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해당 창구에서 접수되는 바를 본부에서 직접 해당하는 교강사나 수업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사실 지난 회의에서 낸 안과 동일한 안으로 요구사항을 똑같이 생각했고 사실 강의 재사용이라는 것이 구체적 기준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전에 사용했던 강의를 재사용하는 것이 강의 재사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 강의 자료라든지 파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을 다시 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찍었던 강의를 다시 사용하시는 건 엄연히 강의 재사용이라고 인문대학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강의 재사용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문대학에서도 적시된 사례들을 보면 그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컴퓨터의 날짜라든지 강의물 시점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전 년도로 표기된 것들이 강의 재사용의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이러한 점들이 접수가 되었을 때 학생회가 접수를 해서 교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학교 본부가 교수님께 시정이나 권고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맞는 행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재사용과 관련된 신고창구를 마련한 다음에 교수께 시정이나 권고조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린다.

부총: 네 감사하다. 업데이트 없이 지난 강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해당 사항이 시각적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을 강의 재사용으로 본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도 될지 모르겠다. 혹시 또 추가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란다. 네 그러면 강의 재사용에 관한 설문 표본이나 자료가 있으신 단위는 수요일까지 총측에 자료를 전달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 드리겠다. 혹시 또 별도로 기타 안건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서라벌홀 불법카메라 탐지 기기대여 문의)

인문.정: 인문대 기타 안건은 아닌데 저희 서라벌 화장실이 완공이 되어서 불법카메라 기계를 대여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총학생회 측에서 방역물품이랑 방역 소독기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를 혹시 대여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다.

총: 제가 알기로는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던 대형 분무기는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방역 소독할 때 사용하는 약품은 학생지원팀에 지금 구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하신다면 총실에 방문하셔서 제가 학생지원팀에 요청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분무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인문.정: 그리고 불탐 날짜도 혹시 총학생회장님께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총: 네 제가 상주를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네 좋다.

#### (차기 대표자회의에 대한 총학생회 집행부 입장 문의)

사과.부: 사과대 마지막을 하나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전학대회 관련해서 아무래도 실무랑 집행 이런것들을 총학생회에서 전반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총학생회 측에서 생각하고 계신 전학대회 일정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어서 질의 드렸다.

총: 우선 축제가 끝나고 진행이 됐으면 하고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참가 대상은 대표자 전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분들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단운위에서 의견을 좀 수합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일정을 픽스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시기에는 진행 됐으면 한나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방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전 중운위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표결 방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바탕으로 진행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과.부: 따로 총학생회 측에서 생각해두고 계신 선호 요일이나 이런 건 없는지?

부총: 요일을 논의하지는 않았고 10월 둘째 주 안에는 진행해야 한다가 총학생회 입장이고 일단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총학생회 전체의 입장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개별 의견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표결 진행시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전학대회의 틀을 유지했을 때는 표결시간이 계속 지체 된다거나 원만한 진행은 2학기에도 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표결을 수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택해왔던 방법이 투표장을 통해서 투표를 한 후에 이제 사후대조를 하는 방법인데 지난 학기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원을 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화면 거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시각적으로는 가장 투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개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에 관해서도 가능하면 한번 의견 정도를 여쭙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총: 화면 거수를 한다는 것이 화면상으로 이제 거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표결을 할 때 소요되는 몇 분의 시간동안 대표자분들이 계속 손을 들고 계셔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좀 내에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각기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한다.

사과.부: 네 답변 감사하다.

부총: 마지막으로 기타 논의사항이나 질의가 있는지 여쭙겠다.

#### (신입생 지원금 사용계획 수합 관련 문의)

통공.정: 부총님이 톡방에서 신입생 지원금에 대해서 뭐 수합하다고 하시지 않으셨는지?

부총: 사실 기타안건에서 수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어쨌든 오늘 안에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부터 각 대표 단위 대표자분들께 회장분들께 카톡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늘 회의는 이정도로 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회의 끝내도록 하겠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